민주, 등원-영수회담 분리 대응키로

'2월 국회 정상화' 돌파구 열려

'대통령 사과' 쟁점 영수회담은 미지수

여야 영수회담을 고리로 지난해 연말 '예산안 파동' 이후 균열한 여야 관계를 복원하려는 시도가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여부 등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면서 정국이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특히 국회 정상화 및 영수회담 개최에 대해 여야는 물론 청와대와 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다음주 초로 예상됐던 국회 정상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7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영수회담 개최와 임시국회 등원을 별개의 문제로 보고 처리하기로 하되 모든 문제를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당론을 정해 2월 중 국회 정상화 가능성은 열어뒀다.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영수회담과 국회 등원 문제는 (서로) 조건으로 삼지 말고 상호 분리해서 대응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등원 문제는 구제역과 물가·전세난 등 산적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 등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원이 다수였으나 최종 결정은 지도부에 일임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영수회담과 관련, "양당 원내대표가 진정성 있는 합의를 한 것이라는 신뢰를 갖고 민주당은 그것을 지켜보기로 했다"며 "다만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야당에 대한 성의있는 모습을 기대한다. 연말 날치기 국회 유린 사태에 대해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최종적으로 일도양단식의 결정 내용은 없었고 이 모든 내용은 지도부에 일임키로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이처럼 당론을 정함에 따라 전날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대표간 합의는 사실상 백지화되고 오는 14일 예정된 임시국회 개원도 불투명해졌다.

다만, 민주당이 국회 정상화 여부에 대해 지도부에 일임한 상태고 시급한 민생현안이 선적해 있어 여권의 태도변화에 따라서는 2월 중 임시국회 개원이 가능한 상황이다.

문제는 여권이 민주당의 국회 등원을 압박하면서도 지난 연말 예산·법안 날치기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 때문에 대표적 의회주의자인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당내 반발로 등원 의지를 관철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 영수회담 개최는 더욱 힘든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영수회담에서 예산안 강행처리에 대한 이 대통령의 사과 등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나 한나라당은 대통령이 사과할 사안이 아니라며 반대하고 있으며 청와대는 영수회담이 급하지 않다는 생각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마무리발언을 통해 "영수회담에 목 멜 필요도 없고 무작정 자신을 스스로 짓밟는 일도 하지 말자"며 "야당에 대한 청와대의 진정성을 차분하게 지켜보자"고 주문했다.

그는 또 "'12·8 예산안 날치기'를 쉽게 잊을 수 없는 만큼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영수회담이 내 무덤을 파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등원하려고 영수회담도 고려했었다"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손학규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가 나란히 앉아 있다. /연합뉴스

'명분'의 손학규-'실리'의 박지원 엇박자

박지원 국회 정상화·영수회담 합의에 손학규, 강한 불만속 민주 지도부 냉랭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6일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2월 임시국회 정상화와 영수회담 추진을 덜컥 합의하면서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당장, 손학규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당내 의원들도 박 원내대표에 대해 냉랭한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6일 민주당은 심야 최고위원회의를 개최, 박 원내대표의 합의안을 뒤집었다가 7일 의원총회에서 2월 임시국회에는 참여하되 영수회담은 등원 문제와 분리 추진하기로 결정하는 진통을 겪었다.

또한, 6일 밤과 7일 오전 연속해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와 7일 오후에 개최된 의원총회에서도 박 원내대표에 대한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손 대표도 지난 두 달여 동안 장외투쟁을 하고 있는 자신에게 별다른 상의 없이 2월 임시국회 개원을 한나라당과 합의한 박 원내대표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손 대표 측에서는 박 원내대표가 너무 앞서 나가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당내에서는 손-박 공조체제에 금이 간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갈리는 것은 예비 대권주자로서 원칙과 일관성을 중시해야 하는 손 대표의 입장과 '의회주의자'를 자처하며 실리를 중시하는 박 원내대표의 입장 차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두 달여 동안 장외투쟁의 '선봉'이었던 손 대표가 장내로 돌아올 명분을 쌓아야만 향후 4·27 재·보궐선거에서 여권을 향한 공세의 고삐를 쥘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가 원내대표로서 마지막 무대라는 점에서 박 원내대표가 너무 의욕을 보인 것 같다"고 "차기 당권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박 원내대표에게 이번 해프닝은 상당한 악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與 오늘 '개헌 의총'… 계파간 긴장 고조

친이 "국가 비전위해 필요" 친박 "박근혜 견제용 의혹"

한나라당이 8일부터 사흘간 실시하는 '개헌 의총'을 앞두고 당내 친이(친이명박)계와 친박(친박근혜)계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의총은 향후 정국을 개헌론으로 흔들 수 있느냐, 아니면 용두사미로 귀결되면서 개헌 이슈가 수면 아래로 잠복하느냐의 중대 기로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개헌과 관련, 친이계는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좌담회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한 만큼 정치권이 장기적인 국가 비전을 위해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친박계는 개헌이 정국을 뿌리째 흔들어 박근혜 전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헌 의총을 계기로 총선과 대선을 앞둔 향후 여권의 권력 투쟁을 촉발시키는 신호탄이 될 수 있어 그 파장이 심각할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전망 속에 친이(친이명박) 주류 모임인 '함께 내일로' 대표인 안경률 의원은 7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 "(1987년 당시) 민주헌법은 민주가 화두이자 시대정신이었다면, 이번 개헌은 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한 시작"이라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친이직계 의원들이 개헌을 위한 세 확산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친이 주류 측이 개헌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할 걸림돌이 너무 많다.

우선 당 소속 의원 50여명에 이르는 친박계가 집단적으로 의총에 불참할 경우 개헌 이슈는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 또 구제역 확산에다 물가·전세대란까지 겹친 마당에 민심과 동떨어진 개헌 이슈에 냉소적인 친이계 일부 의원들과 중도파들도 적지 않다.

이번 의총이 정치권에 개헌론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당내 분란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할지 양 계파 의원들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개헌은 친이계 생존 전략" 공세

민주당은 7일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의 개헌 드라이브에 대해 "친이(친이명박)계의 생존전략"이라고 깎아내렸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한나라당 일부는 개헌을 특정 계파의 생존전략 차원에서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친이계 수장이 아니다. 친이계 살리기 내지는 친이계 공동 분권을 위한 개헌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조배숙 최고위원도 한나라당의 개헌 의총에 대해 "다음에 정권을 잡지 못할 경우 불어닥칠 국민과 법의 심판이 두려워 권력구조를 바꾸는데 혈안이 된 것 같다"며 "개헌을 통한 정권유지에만 몰두하지 말고 힘든 삶을 사는 서민 생활을 생각하라"고 지적했다.

이낙연 사무총장도 이날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설 연휴 때 만난 주민들은 개헌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개헌은 결국 헛바퀴를 돌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국민 기류나 내부의 현실을 직시해서 개헌론을 접고 출구전략이나 마련하라"고 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회 개헌특위 구성문제에 대해 "한나라당 의총에서 어떤 결론이 나와도 민주당은 개헌특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시·도의회 임시회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제194회 임시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별로 2011년도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을 계획이다. 시의회는 또 이 기간 중 광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안 등 22개의 조례안과 성평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전남도의회도 9~18일까지 10일 동안 제257회 임시회를 열고 2011년도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전남도교육청이 올린 '전남도립학교 설립동의안' 등을 심사 의결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靑 "영수회담 아니라 靑 회동"

"구시대 유물 바꿔야"

청와대가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을 의미하는 '영수회담'이라는 용어에 대해 앞으로는 '청와대 회동'으로 표현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영수회담이라는 용어 자체가 구 시대의 정치적 유물로 민주화가 이뤄진 현재 상황과는 맞지 않다는 것이다.

7일 청와대 관계자는 "영수회담은 과거 여당이 정통성이 없고 청와대의 거수기 역할에 머무르던 시절, 대통령이 직접 야당 대표를 상대하면서 생긴 용어"라며 "당청 분리 등 민주화가 이루진 현 시점에서 영수회담이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으며 앞으로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날 때는 '청와대 회동'으로 표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진석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야당과 실무차원에서 만나 청와대 회동에 대한 준비를 하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보고를 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다만 청와대는 의제나 형식, 시점 등에 대한 충분한 조율이 이뤄져야 성과를 낼 수 있는 만큼 시한에 얽매여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이 지난해 연말 한나라당의 예산안 단독처리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나 4대강 사업 문제 등을 청와대 회동의 전제로 한다면 응하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문지도사자격 연수생모집

구 분	전남대학교(6기)
개강일시	◦월요일 주간반 : 2011. 2. 28(월) 09:00 야간반 : 2011. 2. 28(월) 18:00
모집기간	2011. 1. 17(월)~3. 04(금)
수업기간	2011. 2. 28(월)~2011.6. 16(목) (15주 90시간)
모집인원	◦기초반 : 주·야간반 각 30명 ◦심화반 : 주·야간반 기존진급생과 편입생
수업시간	◦매주 (월요일/목요일) 주간반 09:00~12:30 야간반 18:00~21:30
수 강 료	₩360,000 • 광주은행:074-107-004114(예금주:전남대평생교육원)
수료후 특전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사)한국국공립대학 평생교육원협의회장 발급 자격증 취득기회부여(2단계 수료시) ◦각 한문학원 및 학원개설 및 강사추천 ◦각급학교(특기적성 방과 후 교육)강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취득기회 부여(1급까지)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 : 062)530-3873~5 ■지도교수 : 010-2611-1171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ttp://sle.jnu.ac.kr

국토해양부 지정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건물 2,000㎡·토지 3,000㎡ 이상 부동산개발(건축허가등)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해서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을 상시 채용하여야 등록 가능!!

◆ 교육일시 및 장
- 2011.03.03.(목) ~ 2011.03.08.(화) / (총60시간 강의)
- 광주대학교 극기관 3층 305호

◆ 교육대상

구분	전문인력의 유형
자격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건설기술자(학경력자포함), 자산운영관리인력 등
학·석사 학력자	4년제 대학 해당학과 또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개발업법인 등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실무경력자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금융기관 중 개발업무 관련 종사자, 개발업 관련 법인 대표자 등

※ 수강하고자 하는 분들은 등록 전 수강자격 등에 대하여 사무국으로 문의바랍니다.

◆ 교육비
67만원 (교재 및 간식 등 제공, 강의를 시작한 이후 환불은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www.gred.kr 참조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되려면 국토해양부 지정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원에서 전문교육을 꼭 이수하여야 합니다.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원

문/의/전/화 www.gred.kr
• 원 장 이명규교 수 062-670-2421
• 부 원 장 강동욱변호사 062-233-3119
• 사무국장 김병철 062-233-3119

국가공인 한문지도사자격 연수생모집 국가공인

구 분	광주여자대학교(12기)	광주교육대학교(제3기)
개강일시	· 금요일 오전반:2011. 3. 4(금) 09:10 오후반:2011. 3. 4(금) 14:10 · 토요일 오전반:2011. 3. 5(토) 09:10	· 목요일 오전반:2011. 3. 10 (목) 09:10 · 목요일 오후반:2011. 3. 10 (목) 14:10 · 토요일 오전반:2011. 3. 12 (토) 09:10 · 토요일 오후반:2011. 3. 12 (토) 14:10
모집기간	2011 1. 18(화)~3 5(토)	2011. 1. 18(화)~3. 12(토)
수업기간	2011. 3. 4(금)~2011. 8. 13(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1. 3. 10(목)~2011. 8. 20(토) (6개월 24주 96시간)
모집인원	· 기초반:금·토요반 각 25명	· 기초반:목·토요반 각 25명
수업시간	· 매주 금·토요일 오전반 09:10~13:00 오후반:14:10~18:00	· 매주 목·토요일 오전반 : 09:00~13:00 오후반 : 14:10~18:00
수 강 료	₩340,000 •광주은행:148-107-307803(예금주:광주여대)	₩340,000 •우체국:503557-01-005018(예금주:광주교대)
수료후 특전	· 1, 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이사장자격취득기회 부여(2단계 수료시) ·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급학교(특기적성 방과 후 교육)강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취득기회 부여 (1급까지)	· 1, 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이사장자격취득기회 부여(2단계 수료시) ·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급학교(특기적성 방과 후 교육)강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취득기회 부여 (1급까지)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 062)950-3582~4 ▶지도교수 011-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KWANGJU WOMEN'S UNIVERSITY http://always.kwu.ac.kr	▶문 의 062)520-4243 ▶지도교수 011-614-4160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http://www.gnue.ac.kr/